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양 기 화

Quality Assessment for Hemodialysis, 2010

Ki-Hwa Yang, M.D., Ph.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인구고령화현상과 더불어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환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52,546명, 의료비 1조 576억원). 만성신질환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평가를 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만성신질환자의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혈액투석에 대한 질평가가 시급하게 요구된 바, 2001년에 이어 2009년에 시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는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인력과 투석기 및 응급장비 보유 상황 그리고 투석용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장비 및 시설을 포함하는 구조부문의 7개 지표와 혈액투석적절도 등 과정부문의 4개 지표를 평가대상지표로 하였고, 빈혈 및 혈압관리 등 결과부문의 7개 지표를 모니터링지표로 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2009년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요약해보면 기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액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질향상을 유도하고, 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 추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0년 추구평가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지표에서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얼마나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혈액투석 재검사실시율이 추가되었다. 또한 인력부문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해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하고자 한다.